1.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은 ㄱ. 표준어를 ㄴ. 소리대로 적되, ㄷ.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례로 ㄱ, ㄴ, ㄷ)

1. 거시기, 수탕나귀, 오십시오
2. 천정, 곱빼기, 학생이었다.
3. 윗층, 돌잔치, 우윳값
4. 짜장면, 짭짤하다, 쌍용

답: 1

1. 다음 중 어문 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ㅎ종성 체언은 뒷말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3. 한자어와 한자어 형태소 사이에 사잇소리가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지 않는다.
4. ‘퇴간, 회수’ 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5. ‘입때’ 는 ‘이+때 – 이 ㅂ 때’ 로 분석된다.

답: 3

1.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2. 과인산, 사육신
3. 미립자, 총류탄
4. 파염치, 강수량
5. 가정란, 실락원

답: 1

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2. 불 좀 쬐어야겠구나.
3. 선배님, 다음에 봬요.
4. 점점 목을 죄여 오는 느낌이야.
5.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는 좋지 않아.

답: 3

1. 다음의 원칙에 맞게 쓴 어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3. 생각하건데 -> 생각컨데
4. 익숙하지 -> 익숙지
5. 심심하지 않게 -> 심심찮게

답: 2

1. 밑줄친 부분의 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그는 제 친구예요.
3. 이것은 햇밤이에요.
4.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5. 당신을 가해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예요.

답: 4

1.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사용한 것은?
2. 아버지는 추위를 무릎쓰고 밖에 나가셨다.
3.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방에 잠깐 들르셨다.
4. 그가 미소를 띈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5.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벌렸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답: 2

1.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게 사용된 단어는?
2. 예산을 대충 걷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3. 김 씨는 벌써부터 점방에 국수를 발처럼 늘여 널고 있다.
4. 휠체어를 탄 여학생이 달려오는 승용차에 받혀 크게 다쳤다.
5. 동치미는 이따가 입가심 할 때나 먹고 곰국을 먼저 먹어야지.
6.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7. 철수도 오겠데?
8.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9. 그 친구는 알들만 둘이데.
10. 고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데.

답: 1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옮은 것은?
2. 가발을 쓰는 실재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였다.
3. 회사를 부실하게 운용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물러났다.
4.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도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5. 인수위는 여의도에 사물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7. 요즘 머리가 벗겨져서 고민이야.
8. 신발이 꽉 끼어서 잘 벗어지지 않다.
9. 인형의 머리를 빗어 주었다.
10. 이제 그만 분을 삭이고 내말을 들어라.

답: 3, 4

1. 다음 중 밑줄 친 말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2. 떡 한 접시를 금새 먹어 치웠다.
3. 그는 중요한 임무를 띄고 밤에 떠났다.
4. 이 일은 어제 한 일보다 몇 갑절 힘들다.
5. 서두르지 마고 누긋하게 결과를 기다립시다.
6. 모드 비슷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가름할 수 있다.
7. 밑줄 친 단어가 바르게 사용된 것은?
8.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 날씨가 좋을런지 모르겠다.
10. 그 사람은 괴퍅하다.
11. 그는 아직 한참 일 할 나이다.

답: 1

1.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2. 일일이, 심부름꾼, 때깔, 유월
3. 꼼꼼이, 뒤꿈치, 오뉴월, 승낙
4. 상당히, 귓대기, 판자때기, 곤란
5. 쓸쓸히, 팔꿈치, 젖갈, 희로애락

답: 1

1. 다음 중 정서법이 모두 옳은 것은?
2. 칠흑 – 끗발 – 화투 – 가자미식해 – 굼벵이
3. 끝발 – 굼뱅이 – 신락원 – 텃세 – 시래기
4. 칠흙 – 돌멩이 – 호두 – 고깃국 – 시나브로
5. 화토 – 호도 – 신락원 – 고기국 – 두더지
6. 가자미식혜 – 텃새 – 씨래기 – 두더쥐

답: 1

1.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2. 식구가 아주 단출하다.
3. 친구에게 부줏돈을 전달하였다.
4. 잠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났다.
5.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답: 1, 4

1. 다음 중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2. 철이 덜 나서 주책스럽게 입을 놀린 겁니다.
3. 애면글면하면서도 결국 목적을 달성하였지요.
4. 그는 대답을 가로채면서 안절부절못하는 태도였다.
5.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답: 1

1.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은?
2. 살다 보면 별 희안한 일이 다 생기지요.
3. 고향에서 온 편지를 뜯어본 그의 심정은 착찹하기 이를 데 없었다.
4. 이렇게 심하게 아픈 줄 알았더라면 진즉 병원에 가 볼 것을 그랬다.
5. 그가 그처럼 흉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답: 3

1.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2. 날씨가 흐리니 비가 올 성 싶다.
3. 너의 단점은 남이 말할 때 기어드는 데 있다.
4. 사과가 수박만 하다면 믿겠어요?
5. 다음 학기부터는 열심히 공부 할 거야.

답: 1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2. 막내 마저 출가를 시키니 허전하다.
3. 여기는 비가 온 지 석달이 지났다.
4. 영수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데서 보람을 찾는다.
5.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답: 1

1. 띄어쓰기가 올바로 표기된 것은?
2. “뭐라고” 라고 물었다.
3. 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4. 차가 끊겨 걸어 갈 수 밖에 없었다.
5. 사과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다니.

답: 1

1. 다음 중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된 것은?
2. 그곳은 아직 한 겨울이라 날씨가 좋지 않았다.
3. 요즘 풀을 뽑고 마당을 늘리는 일에 재미가 붙었다.
4. 그 아이는 핼쓱한 얼굴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5. 모인 사람의 수는 걷잡아도 100명은 충분히 넘어 보였다.
6. 이것은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야.

답: 2

1. 다음 사이시옷을 넣은 단어 중 잘못된 것이 들어 있는 것은?
2. 귓밥, 나룻배, 냇가, 뱃길, 혓바늘
3. 멧나물, 아랫니, 냇물, 뒷일, 최댓값
4. 귓병, 샛강, 자릿세, 텃세, 햇수
5. 곳간, 나룻터, 셋방, 횟수, 깻잎

답: 4

1. 다음 속담들을 살펴보았을 때 맞춤법에 맞는 것은?
2. 빈대도 콧등이 있다.
3. 사자밥인 줄 알고도 먹는다.
4. 뒤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5. 며느리가 미우면 발뒷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답: 1

1. 밑줄 친 단어의 사이시옷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2. 그들은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3. 아이들은 등굣길이 마냥 즐거웠다.
4. 빨랫줄에 옷을 널었다.
5. 마굿간에는 말이 두 마리가 있다.

답: 4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2. 내일 야유회 간데요?
3.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4.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5.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답: 3

1.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2.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3.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4.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5.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6.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7.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9.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10.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답: 2

1.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인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1. 격물치지
2. 본말전도
3. 유명무실
4. 돈오점수

답: 2

1.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2.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3.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았겼고 동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4.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5.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6. ㄱ-ㄴ-ㄷ-ㄹ
7. ㄴ-ㄱ-ㄹ-ㄷ
8. ㄷ-ㄹ-ㄱ-ㄴ
9. ㄹ-ㄷ-ㄴ-ㄱ
10.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12.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3.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14.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 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답: 3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 즉 꽹가리, 징, 장구, 북의 네가지 타악기 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 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꽹가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잦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1. 사물놀이의 가치
2. 사물놀이의 소리
3.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4.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답: 1

1.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1.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2.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3.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4.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한해질 것이다.

답: 4

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2. 하나에 백 원씩 처주마.
3.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처지네.
4.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처대고 있지.
5. 오는 길에 처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6.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7.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8.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9.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10.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답: 4

1.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3.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5.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답: 2

1.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3.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4. 그 친구는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5.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 이다.

답: 4

1. (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을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1.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2. 면도칼, 서릿발, 쉰둥이, 장난기
3. 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4.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답: 1

1. 다음 중 차별적 언어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2. 그것은 학교에서 하부형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일인 것 같군요.
3. 이 소설은 작가의 처녀작으로, 당시 문단의 호응이 매우 컸던 작품입니다.
4. 살구색 옷은 잘못 입으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 해서 입어야 합니다.
5. 복지 정책이 날로 더 발전하고 있으니, 미망인의 문제도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6. 한국어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7. 한국어는 첨가어 이므로 접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8.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잇달아 나타나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
9. 한국어에서 관형어는 항상 체언 앞에 나온다.
10. 한국어의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11. 밑줄 친 색채어의 뜻이 원래의 뜻과 가장 멀어진 것은?
12.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
13. 어느 누가 들어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14. 말 한마디에도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수 있다.
15. 밤을 하얗게 새우고서야 겨우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다.

답: 2

1. 국어의 특성이 아닌 것은?
2. 파열음계의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가지 대립을 보인다.
3. 굴절어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였다.
4.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자리바꿈이 가능하다.
5.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하였다.

답: 2

1. 아래와 같은 발상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는 그동안 한자어를 고유어보다는 더 고상한 것, 교양이 있는 사람의 품위있는 표현으로 여겨 왔다.

1.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2. 어르신께서 먼저 진지를 드셔야지요.
3.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4. 즉시 시정 작업하도록 통보할 것을 당부 합니다.
5. 밑줄 친 말이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6. ‘동아리’ 는 순수한 한글 단어이고 ‘서클’은 외래어이다.
7.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이다.
8. 한글 전용이란 글을 쓸 때 한문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9. 다른 언어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단어를 차용어라고 한다.

답: 4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그것은 여간 재미있지 않다.
3. 11월이 다 지났으니 곧 겨울방학이 되겠지
4. 그 친구가 드디어 고시에 합격했다.
5. 비는 여간해서 그칠 것 같았다.

답: 4

1. 다음 중 문법에 맞게 단어가 사용된 것은?
2. 최근 시험에서는 객관식의 비중이 얕아지고 있다.
3. 이번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확정된다.
4. 기상대는 눈이 그치는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5. 그 학자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답: 3

1. 밑줄 친 부분의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신도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 그는 어제 술이 취해서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
4. 정부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5. 그가 고행을 떠난 지도 올해로써 10년째이다.

답: 2

1. 다음 문장에서 접속 어미나 접속 조사가 바르게 사용된 것은?
2.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불확실한 패스웍과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해 지고 말았다.
3. 저는 건사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4. 정부는 부동산 투기 지역이나 투기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하기로 햇다.
5. 청소년을 상대로 술, 담배를 팔거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답: 4

1. 다음 중 조사의 쓰임을 고려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2. 철수가 영희에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이곳은 그동안 합격의 산실로써 많은 역할을 GOTTEK.
4. 탤런트 조재현이 영화 “나쁜 남자” 에 주연을 맡아서 열연하였다.
5. 애리조나 팀의 코치가 마무리 투수의 첫째 조건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꼽았다.

답: 4

1. 우리 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쓴다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다.
4. 시민 각자가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5.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답: 2

1.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2.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써 그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
3. 홍 교수는 고려 가요 ‘청산별곡’ 을 대칭 구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4. 위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보면 김 교수의 몽고에 대한 연구가 원 세조 등장 이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이 인위적이다.
5. 그는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답: 4

1. 다음 중 문장 구성상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2. 길을 다니거나 놀 때에는 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3. 수철이의 어릴 때 소박한 꿈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4. 주민들은 보상 거부와 토지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 열차는 잠시 후 김천역에 도착하여 1분 동안 정차 하겠습니다.

답: 4

1. 가장 자연스럽고 어법에 맞는 문장은?
2. 생선의 신선도는 눈보다 아가미를 보고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3. 인류의 장래를 위해 우리 모두 환경 보호를 앞장서야 한다.
4. 친척들이 우리 집에는 피해가 없느냐고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5. 제도의 모순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시의 언어는 보통의 경우 비약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일례이다.

답: 4

1.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2. 우리가 사는 지구는 쓰레기에 덮이고 오염에 찌든 몹쓸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3. 구약성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밸 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4. 부채비율 축소나 계열사 정리 등에 여력이 없는 재벌이 당장 공기업 쪽에 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정부는 이번 기름 유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국들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답: 5

1. 어법에 맞는 것은?
2. 말과 글은 우리 후손에 물려줄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3. 오늘날 로봇이 산업체의 생산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4. 민영화로 인해 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5.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번 오염된 환경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든다.

답: 2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jkim1991&logNo=220447727840